

중부소식

KODSC JungBu News

"2025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 직업병 안심센터 홍보 부스 성료"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는 2025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직업병안심센터의 역할과 서비스를 홍보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지역 유관 기관과 산업체,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자리로, 직업성 질병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행사 기간 동안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센터 의뢰 절차 및 서비스 이용 방법, 직업성 질병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소개,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협력 사업 안내, 유해인자 노출과 이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현장의 보건관리자 분들과의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센터 운영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업병 안심센터는 보건의료, 지역사회, 산업현장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가 직업성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 개원의를 위한 내과학 연수강좌에서 센터 홍보 나서"

2025년 6월 1일(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서 강원내과학연구회 주관으로 '2025 개원의를 위한 내과학 연수강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연수강좌에는 강원도 내 개원의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료진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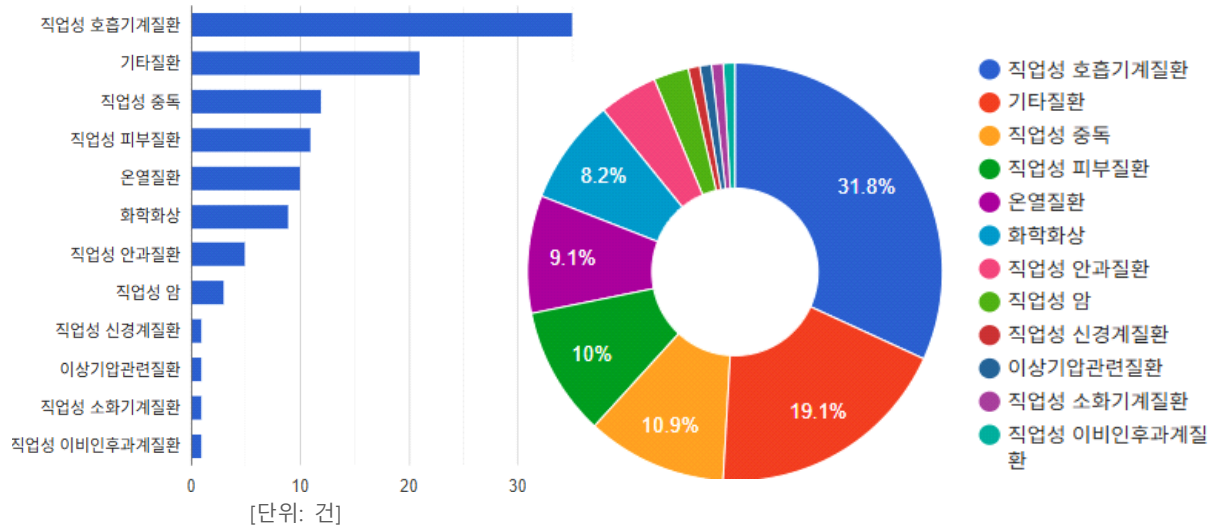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는 이 자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센터의 주요 역할과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직업병의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강원 직업병안심센터는 지역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직업병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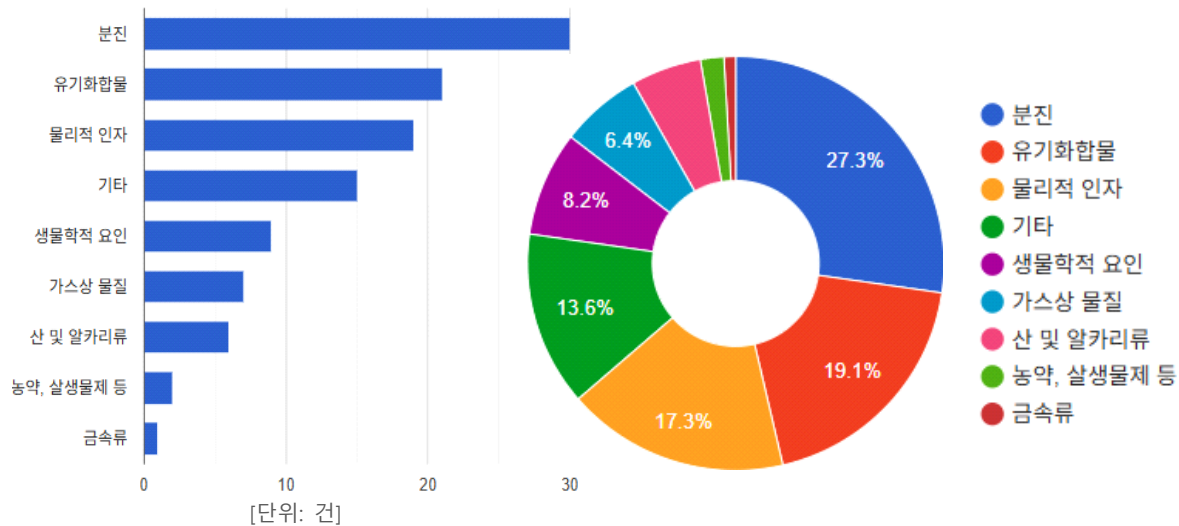


직업병 사례 통계 -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2025년 05월 (2025.05.01.~2025.05.31.)

<질환별>



<유해요인별>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에 총 110건의 직업병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질환별로 분류하면 직업성 호흡기계질환 35건, 기타질환 21건, 직업성 중독 12건, 직업성 피부질환 11건, 온열질환 10건, 화학화상 9건, 직업성 안과질환 5건, 직업성 암 3건, 직업성 신경계질환 1건, 이상기압관련질환 1건, 직업성 소화기계질환 1건, 직업성 이비인후과계질환 1건 등이었습니다. 추정 유해요인별로 분류하면 분진 30건, 유기화합물 21건, 물리적 인자 19건, 기타 15건, 생물학적 요인 9건, 가스상 물질 7건, 산 및 알칼리류 6건, 농약, 살생물제 등 2건, 금속류 1건 등이었습니다.

직업병 사례

“군무원에게 발생한 과민성 폐실질염”

62세 남성으로, 군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에 과민성 폐실질염으로 처음 진단받았다. 당시 주된 업무는 장비 정비로, 다양한 분진 및 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한다. 환자는 과거 30년간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금연한 상태이며, 기타 특이한 기저질환은 없다.

초기 진단 당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아스페르길루스(Aspergillus) 곰팡이가 검출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2024년 11월과 2025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재발하였다. 특히, 2025년 7월 재발 당시에는 숨이 차는 증상이 심해 응급실을 내원하였으며, 검사상 백혈구 증가 등 염증 반응과 혈중 산소농도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흉부 X-ray 및 CT 검사에서는 폐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음영 증가가 관찰되었다.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하여, 호흡기내과 외래에서 추적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민성 폐실질염(hypersensitivity pneumonitis)은 환경적 또는 직업적 항원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면역 매개성 폐질환으로, 폐포 및 세기관지 주변에 면역복합체 침착 및 림프구 매개 염증을 특징으로 한다. 주된 직업적 원인으로는 곰팡이 분진(농부 폐), 조류 배설물(조류 사육자 폐), 버섯 균사체(버섯 작업자 폐), 목재 분진, 금속가공유 분무체 등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본 사례 역시 정비 작업 시 발생한 분진 및 화학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과민성 폐실질염 환자는 기침, 호흡곤란, 발열 등의 아급성 증상을 보이거나, 만성적으로 진행될 경우 섬유화에 따른 심한 호흡곤란과 체중감소를 호소하기도 한다. 흉부 CT에서는 중심소엽성 미만성 결절, 간유리 음영, 기관지벽 비후 등의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난다. 진단은 직업력 청취, 영상 검사 및 필요 시 조직 검사를 종합하여 이루어지며, 치료의 기본은 원인 항원 노출을 철저히 회피하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방 및 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보호 조치

KF94 이상의 방진마스크, 보호복, 장갑 등을 적절히 착용하고, 정기적인 마스크 적합성 검사를 시행한다.

(2) 건강 모니터링 및 조기 진단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폐활량 검사, 흉부 X-ray, CT 등)을 필수로 시행한다. 만성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신속히 폐 기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작업 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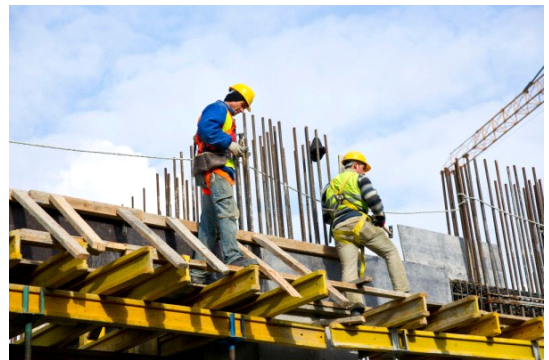
국소 배기장치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장 내 유발 항원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유발 물질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자재를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결론적으로, 직업성 과민성 폐실질염 예방을 위해서는 항원 노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공학적·행정적 관리 및 개인 보호장비 착용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 진단 및 진단 이후 진료를 통해 폐의 만성적인 섬유화 진행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여름철 옥외작업자에서 발생한 열경련”

50대 남성으로 야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이다. 내원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한 햇볕 아래에서 장시간 작업 후 전신 무력감과 사지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구토까지 동반되어 119를 통해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응급실 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은 명료했으나, 탈수와 전해질 이상을 동반한 열탈진으로 진단되었다. 검사 결과 급성 신손상과 고칼륨혈증도 함께 확인되었다.



온열질환이란 고온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을 포함한 질병을 말한다. 매년 약 500~800명 정도가 발생하며, 주로 5~9월(특히 폭염이 잦은 7~8월)에 옥외작업자 및 고온 환경 근로자(건설, 조경, 농림업 등)에게 자주 발생한다.

사업장은 작업 시작 전 체감온도 예보를 확인하고, 특히 체감온도가 31℃ 이상일 경우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① 그늘 확보

- 그늘막 또는 차광막(햇볕 완전 차단 재질)을 설치하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함.
- 의자, 돛자리, 음료수대 등 휴식 비품 비치
- 소음, 낙하물, 차량 통행 위험 없는 장소 선택, 가능하면 실내 휴게실 마련

② 음용수 제공

- 작업자들이 소량의 시원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도록 충분히 준비함

③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 기왕력자,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 고령자(65세 이상), 불침투성 작업복 착용자, 강도 높은 신체활동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강화

온열질환 발생 시 질환 종류에 따른 증상과 현장 대응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열사병

- 주요증상 : 의식상실(또는 기절), 현기증, 두통, 경련 등의 전구증상, 뜨겁고 마른 피부, 체온 40℃ 이상
- 현장 대응 방법 : 즉시 119 신고 및 이송, 냉수 뿌리기, 선풍기, 얼음 마사지, 옷을 모두 벗김

② 열탈진

- 주요증상 : 두통, 구역감, 현기증, 무기력증, 갈증
- 현장 대응 방법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③ 열경련

- 주요증상 : 수의근(의식적으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경련 발생, 사지 동통, 발작적 경련
- 현장 대응 방법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④ 열허탈

- 주요증상 : 전신권태, 탈진, 현기증, 의식상실(기절), 심박수 증가, 혈압 저하, 정상 체온
- 현장 대응 방법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의식 없는 경우 의료기관 이송

⑤ 열피로

- 주요증상 : 구갈(목마름), 소변량 감소, 현기증, 사지의 감각이상, 보행곤란, 실신
- 현장 대응 방법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물과 염분 보충*, 의식 없는 경우 의료기관 이송

⑥ 열발진

- 주요증상 : 땀띠, 붉은 구진
- 현장 대응 방법 : 발생부위 냉각, 세척 후 건조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아래의 단계에 따라 신속 대응한다.

① 의식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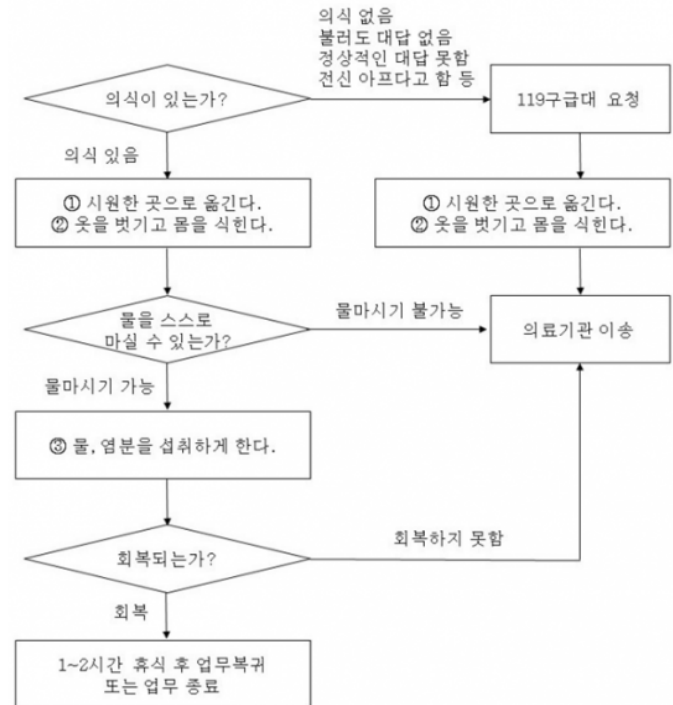
- 의식 확인(불응, 정상적 대답 불능, 전신 통증 호소 등)
- 즉시 119 신고
- 시원한 곳으로 이동, 옷 벗기고 몸 식히기
- 의료기관 이송

② 의식 있는 경우

- 의식 여부 확인
- 시원한 곳으로 이동, 옷 벗기고 몸 식히기
- 물 섭취 가능 여부 확인
- 물 마실 수 있으면 물과 염분 보충 (불가능 시 의료기관 이송)
- 회복되면 1~2시간 휴식 후 업무 복귀 또는 업무 종료 (회복 못할 경우 의료기관 이송)

〈참고문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
(KOSHA GUIDE H-219-2022)



그 외 직업병 사례들

직업성 중독

- ◆ 배관 세정원에게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 ◆ 하수구 정비 작업자에게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화학화상

- ◆ 실험실 종사자에게 발생한 화학화상

온열질환

- ◆ 옥외근로자에게 발생한 탈수성 열탈진

기타 질환

- ◆ 의사에게 발생한 바늘 찔림 사고로 인한 감염
- ◆ 폐수처리장 작업자에게 발생한 폐렴

☀️ 직업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직업병엔 도너리(Don't worry)가 같이 합니다.



직업병 안심센터

대상

업무와 관련해 불편한 증상, 질환을 경험한 분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

급성중독

(화학물질 노출 후 발생한 이상 증상 또는 질식, 열사병 등)

호흡기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천식 등)

신경계질환

(말초신경병증, 파킨슨증후군 등)

피부질환

(접촉성 피부염, 백반증 등)

간질환

(독성간염 등)

직업성 암

(폐암, 혈액암, 비인두암, 방광암, 신장암 등)

☑️ 무엇을 도와주나요?

- 직업성질환 진단, 원인파악
- 직업병 예방 및 환경개선 지원
- 산재요양 필요여부 상담 등

☑️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초기 진료비 일부 지원
- 이후 직업성질환 진단 비용 일부 지원
(단, 외상성사고, 근골격계질환, 소음성난청 등은 제외)

문의 ☎️ 1588-6798 (전국대표번호)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
인하대병원
☎️ 032)890-0843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033)741-0342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아주대학교병원
☎️ 031)219-5645

경기북부 직업병 안심센터
한양대구리병원
☎️ 031)560-2725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www.kodsc.org